# 東海,이름만들어도시원海

## 해수욕장 6곳 피서객 맞이 분주



무더운 여름이 올해도 찾아 왔다. 푸른 동해바다가 더위 에 지친 도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강원도내 해변들은 벌 써 피서객을 맞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의 피서객 맞이 움직임을 살펴봤다.

### 하이킹·보트·예술제 '피서지 1번지'

◇강릉 경포·주문진·연곡 해수욕장

경포해수욕장은 동해안 최대 해변으로 명실상부한 피서지 1순위이다.

넘실거리는 푸른 파도와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 얀 백사장, 그리고 시끄러운 일상을 조용히 차단하 는 울창한 송림병풍의 조화가 해변 특유의 아름다 움을 자아낸다. 길이 1.8㎞에 폭 80㎞의 백사장을 보 유하고 있으며 자전거하이킹, 모터보트, 바나나보 트, 스킨스쿠버, 경포관광마차 등 다양한 레저를 즐 길 수 있으며 여름바다예술제 등 축제도 열린다.

주문진해변은 수심이 얕고 바닷물이 맑아 조개를 잡을 수 있으며 단체의 피서지로 적합하다. 향호호 수가 옆에 있어 사철 담수어 낚시도 할 수 있고 해변 뒤에 있는 6,600㎡의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는 야영도 가능하다.

연곡해변은 길이 700m, 5만6,000㎡의 넓은 백사장을 간직하고 있으며 울창한 솔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 단체객의 야영지로 최적이다. 지난해 7월 일반캠핑장 111면(데크설치 81면, 노지이용 30면) 규모의 솔향이 캠핑장이 조성, 운영중이다.

소금강과 진고개에서 흘러 내려오는 맑은 연곡천 에서 은어를 낚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강릉=강원일보 정익기 기자

### 넓고 쾌적한 환경 '오토캠핑 성지'

◇동해 망상해변

2km의 넓은 백사장을 가진 동해시 망상해변은 오 토캠핑의 성지로 이름 높다. 얕은 수심, 청정 바닷 물, 넓은 백사장, 울창한 송림 등 동해안에서 가장 넓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의 오토캠핑장이 들어선 곳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3대 캠핑장이 있다. 2002년 세 계캠핑카라바닝 대회가 열린 곳으로 캠핑에 필요한 개수대나 화장실, 샤워실 등은 기본이고 컨벤션센 터, 클럽하우스, 카페테리아 캐러밴, 캐빈하우스(통 나무집), 아메리칸코티지(목조연립형 주택) 패밀리 롯지 같은 이국적인 숙박시설도 있다.

캠핑은 물론 경치도 빼어나고, 윈드서핑·모터보 트 등 다양한 해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정자·산 책로·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최근에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서는 전통 한옥을 신축해 한옥숙박체험도 할 수 있다. 500m 거리에 캠핑장 56면, 캐러밴 41대가 있는 망상제2오토캠핑 장도 함께 운영한다. 가족 단위 휴양 여건이 훌륭히 갖춰진 새로운 레저 문화를 창출하는 공간이다.

인근 천곡 자연동굴, 무릉계곡 추암 촛대바위를 비롯해 남쪽으로 간이 해수욕장(노봉·대진·어달· 한섬·감추·추암)이 있으며 3일과 8일에 열리는 북 평장을 관광할 수 있다. /동해=박영창기자

# $8월 3\sim 6일$ 속초여름페스티벌

◇속초해수욕장

오는 7월7일부터 8월20일까지 45일간 운영될 속



양양 낙산해변.



삼척해변.

초해수욕장은 쾌적한 환경 조성과 서비스 차별화,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해수욕장으로 운영된다.

속초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수욕장 구역내에서 일체의 상행위가 금지되며 파라솔 대여업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운영한다. 또 영구상가(5 동)로 쓰던 건물은 행정 지원센터, 유관기관 합동 상황실, 수상안전요원 숙소, 응급치료소 등으로 탈 바꿈했다.

특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13대의 수상보트를 투입, 24시간 수상 안전 관리에 나선다.

관광객들에게 핫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위해 8월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2017 SOKCHO SUMMER BREAK' 속초여름 페스티벌이 열린다.

주간에는 관광객 참여형 체험 이벤트(추억의 DJ 박스, 타투, 드레스존, 폼머신&워터캐논 등)가, 야 간에는 M.net 힙합 경영대회인 언프리티 랩스타출신의 인기 여성 래퍼인 '제시와 키썸', 쇼 미 더 머니 출신의 인기 남성 래퍼 'G2와 레디' 등 유명 뮤지션이 각각 출연한다. 젊은이들의 열정을 불태울 DJ파티에는 DJ JUNCOCO, DJ YOUNG JERRIS, DJ TEZZ, DJ GARENZ, DJ INSIDE CORE가 등장, 한 여름 밤 속초해수욕장을 뜨겁게



동해 망상해변.

달군다. /속초=고달순기자

# 야간 공연·불꽃놀이·해변식당

◇삼척 해변

2017 삼척비치 썸 페스티벌이 7월22일부터 26일 까지 5일간 삼척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삼척비치 썸 페스티벌은 대명 쏠비치가 공동 주 관사로 참여, 기업과 자치단체, 주민들이 공동 참여 하는 유일한 여름 축제로, 기업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이다.

올해 축제 컨셉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해변파티 형식으로 '에메랄드빛 바다, 일탈로의 초 대'를 주제로 동해항만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비치 사커대회와 바다카약을 시작으로 축제기간 야간 음 악공연과 DJ 파티, 불꽃놀이가 이어진다.

주말인 7월22일과 23일에는 박상민과 DJ DOC 등이 출연하는 빅공연이 있으며 축제의 색다른 재미를 더해 줄 액티비한 체험과 이벤트에 재규어 랜드로바, 클라우드 롯데칠성음료, 포카리스웨트, 수제맥주업체가 스폰서로 참여·운영한다.

푸드트럭과 쏠비치 쉐프들이 향토음식과 식자재를 이용한 로컬푸드 해변식당을 운영하며 상가 번영회와 봉사단체가 향토음식 레시피를 전수·판매한다.

삼척지역 16개 해수욕장이 7월14일부터 일제히 개장한 가운데 삼척해수욕장은 산책로와 썬베드, 비치파라솔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동해안 해수욕장 최초로 장애인들을 위한 비치전용 휠체어 4대를 우선 설치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휴먼 (Human) 비치'를 운영된다. /삼척=황만진 기자

# 야간 공연·불꽃놀이·해변식당

◇고성 송지호해변

고성 송지호해변은 백사장 길이 2km, 폭 100m로 다른 곳에 비해 백사장이 길고 물이 맑고 깊이가 얕 아 가족단위로 물놀이를 즐기는 등 연간 수십만명 의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바다 전면에는 대나무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경관이 수려한 죽도가 가로놓여 있어 천혜의 해변으 로 각광을 받고 있다. 주변 송지호와 울창한 송림이 어우러져 풍광이 수려할 뿐 아니라 숙박시설의 이용 이 편리하여 가족단위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경치와 편리한 시설을 갖춘 동해 안의 대표적 오토캠핑장 가운데 하나인 송지호 오 토캠핑장을 갖추고 있어 더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90곳의 야영장(데크)을 비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90곳의 야영장(데크)을 비롯해 100대 규모의 주차장, 10동의 통나무집, 샤워장 및 화장실, 음수대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또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235호로 전통가옥 보존지구인 고성 왕곡마을은 북방식 가옥형태를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왕곡 전통마을, 송지호에 날아드는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고 총 89종 240여점의 박제를 전시한 조류박제전시관, 옥외전망대등을 갖추고 있는 송지호 관망타워도 또하나의 볼

거리다. /고성=이경웅기자

### 싱싱한 횟감·천년고찰 낙산사

◇양양 낙산·죽도 해변

양양 낙산해변과 죽도해변은 긴 백사장과 서핑 명소로 유명한 강원도 동해안 대표해변이다.

낙산해변은 여름 피서철이면 전국 각지에서 100만 이상의 인파가 다녀가는 대한민국의 대표 해변중 하나이다. 백사장 길이가 2km에 달하며 깨끗한백사장과 얕은 수심으로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 백사장을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 숲은해변의 운치를 더하고 있으며, 다양한 숙박시설과야영장, 다양한 편의시설과함께 싱싱한 횟감을 구할수 있는 항포구(전진항)가 있어 편리하다.

해변 인근에는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낙산 사가 있어 문화여행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관동8경 중 하나인 의상대에서 노송과 함께 맞이하는 일출 은 낙산해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 억을 선사할 것이다.

대나무숲이 우거진 죽도(竹島) 옆에 위치한 죽도 해변은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해 과거에는 가족 피서지로 각광을 받다가 최근 서핑마니아가 대거 몰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핑 포인트로 자리 잡았다.

해안가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으로 인해 질 좋은 파도가 많으며 섬이 없어 파도가 깨지지 않고 고르게 밀려온다. 서핑숍과 게스트하우스, 퓨전음식점이 있어 젊은세대들이 많이 찾는 편이다. 죽도 정상에 위치한 정자(죽도정)에 오르면 파도가 깎아 만든여러 모양의 바위와 탁 트인 바다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양양=박기용기자

○光加日料 ① 环烯甲根 라전면영보 ※ 경남신문 参 대전일보 ❷ 총묘新聞 💈 부산일보 전복일보

新팔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